



맛, 인간의 진화 이끌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미각의 비밀'
존 매쿼이드 지음·이창호 옮김

서식지 돌아다니며 인간 변성
변화·수용 거쳐 음식문화 형성
인간성 등 영향...미래도 좌우

요한 기제다. 어떤 이는 아침에 쓰디 쓴 커피 한잔을 마시며 일과를 시작한다. 또 어떤 이는 맛집을 찾아가 기행을 하는 불면을 마다하지 않는다. 매운맛에 매혹돼 수시로 순례를 하는 이들도 있다.

맛을 실증적인 과학의 세계로 접근하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폴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존 매쿼이드가 펴낸 '미각의 비밀'은 미각이 어떻게 인간 진화를 이끌어왔는지를 추적한다. 한마디로 맛에 대한 쓰고, 달고, 맵고, 감칠맛 나는 전기(傳記)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주방과 슈퍼마켓, 농장, 레스토랑, 과학 연구실을 방문하고 탐사했다. 유전자 자가 우리의 미각을 어떻게 빚어냈는지, 숨어 있는 맛 지각이 우리 몸 기관에 어떻게 파고드는지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맛의 과학이 20세기에 발전한 것은 "마음과 뇌와 몸 사이의 연결 관계 즉, 왜 나는 저 치즈버거를 꼭 먹거나 저 와인을 꼭 마셔야 한다고 생각할까? 같은 물음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인간에게는 모두 다섯 가지 미각이 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이 그것이다(앞으로 지방 맛이 공인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미각은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이들 미각은 인간의 삶에 쾌감과 때로는 고통을 동반한 풍요로움의 음영을 드리운다. 또한 삶을 아름답고도 빛나며 흥미 가득한 것으로 만든다.

존 매쿼이드는 지구상에서 미각이 탄생하는 과정

을 다섯 단계로 설명한다. 체계적으로 먹이를 잡아 먹기 시작한 단계, 냄새를 통해 먹이를 사냥하게 된 단계, 맛이 뇌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형성된 단계, 시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단계, 불 사용으로 미각과 후각·시각·청각·촉각이 향미 감각으로 합쳐지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인류의 진화와 더불어 미각 또한 진화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각의 유연성을 지녔다는 의미다. 오늘날 커피와 맥주의 쓴맛, 고추나 고추냉이의 매운맛 선호는 그만큼 미각이 발달해왔음을 보여준다. 성공을 거둔 생물들의 종은 예외 없이 환경에 잘 적응한 무리다. 인류 조상들이 살던 아프리카의 자연 환경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강과 평원, 산봉우리가 널려 있던 저지대부터 고지대 밀리미터로산까지 다양한 지형이 펼쳐져 있었다. 변화가 많은 서식지를 돌아다니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변성하는 법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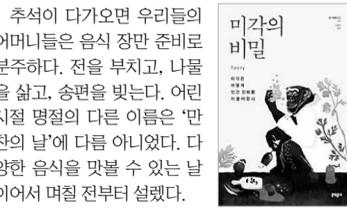
미각 가운데 쓴맛은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생물학적 경보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혀에 쓴 물질이 닿으면 뇌에 전기화학적 연쇄 반응이 일어나며 불쾌감을 준다. 그러나 쓴맛은 다른 향미와 섞일 때 새로운 맛으로 전이된다. 일례로 커피와 초콜릿의 결합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미각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통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미각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학동네·1만6000원〉

약력

소설가·문학박사·전남대 강사,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음식 장만 준비로 분주하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삶고, 송편을 빚는다. 어린 시절 명절의 다른 이름은 '만찬의 날'에 다를 아니었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날이어서 며칠 전부터 설했다.

시간이 흘러 예전만큼 분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음식에 대한 기대다. 사람의 입맛처럼 보수적인 게 없다. 오죽했으면 인간의 6가지 감각 중 가장 보수적인 게 미각이라 했을까.

이렇듯 맛에 대한 감각은 다분히 감정적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졸업식 날 동네 중국집에서 맛보았던 짜장면 등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면들이다. 정서적인 이미지와 함께 음식을 먹던 당시의 느낌을 환기한다.

물론 음식의 유래와 변천사는 당대 정치와 사회, 문화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오늘의 음식은 다양한 지구촌 식문화가 변화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 이른 결과다.

일상에서 맛은 선택을 좌우하는 중

〈연휴에 읽을만한 에세이 5〉

헨리 데이비드 소로 '소로의 야생화 일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고전이다. '월든'은 1845년 7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 근처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산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평생 사랑했던 존재가 있었다. 다른 야생화다. 햇빛 절벽 틈에서 자라는 매발톱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수련 등 야생화는 척박한 곳에서 피고 진다.

"야생화는 단 한 순간의 햇빛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날씨가 감사하는 것은 인간보다 꽃이다." "야생화 일기"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야생화를 관찰하며 느낀 사유의 단편들을 기록한 책이다. 책을 엮어내는 작가이자 서평가인 제프 위스너로 현재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책에는 자연주의 철학자로서의 모습 외에도 식물학자로서의 면모가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50여 개 야생화의 대화형은 강렬한 향기로 다가온다.

신영복 '넷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울조 들려온 신영복 선생의 별세 소식은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다. 시대의 선각자이자 사상가이며 참치식인이었던 신영복,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선생(스승)이라고 칭한다. 스승이라는 존칭이 점차 어색하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신영복은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스승의 사표로 남아 있다.

신영복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의 제자이자 동시에 스승이며,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의 연쇄를 확인하는 것이 곧 자기발전"이라고.

그는 1968년 스물여덟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8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기까지 만 20년 20일의 수형 생활을 해야 했다. 깊은 동굴과도 같은 감옥에서 깊어 올린 깨달음의 언어는 많은 이들에게 감명과 위안을 주었다.

'넷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는 그의 1주기를 맞아 출해 출간된 유고집이다. 선생이 발표한 글과 강연록 중 책으로 묶이지 않은 글들을 모은 것이다.

공지영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생의 어느 봄날 한 번쯤 오뉴월의 훈풍에 아파서 울 때가 있는 것이니까요. 마치 혼자서만 세상 밖으로 내뿜어져진 것같이 외로울 때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너만 그러는 것은 아니야, 하고 다가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예술가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이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효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삶을 택하게 하고 인간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는 공지영 작가의 두 번째 산문집이다. 2006년 처음 발간된 책은 이후 힘겨운 시간과 고통의 경험 등이 담겨있다.

작가는 'I'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상처의 기억이거나 원망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사람과 부조리한 현실 등에 대해 과감하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또한 고백과 성장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고통의 경험들이 삶의 한 과정임을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신현림 '시가 나를 안아준다'

"말이 힘들고 지치셨나요? 이젠 시(詩)로 위로받으세요." 신현림 시인은 시가 주는 위안의 힘을 믿는다.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만나거나, 힘들 때 영혼을 쉬게 하는 습어가 시"라고 말한다.

신현림 시인이 펴낸 '시가 나를 안아준다'는 제목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은은하게 비추준다. 단순히 위로와 힐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장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시와 그림을 엮었다.

괴테, 타니한, 니체 등의 시를 비롯해 윤동주, 신동엽, 이성복, 정호승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시도 수록돼 있다. 그렇다고 단선적인 잠언 성격의 시도 아니고, 난해하거나 어려운 시도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울림이 있는 시를 담았다. 수록된 시들은 대부분 '밤, 고독, 사랑, 감사, 희망의 힘'을 주제로 한다. 역설적으로 외롭고 불안한 나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법륜스님 '야단법석2'

"제일 긍정적인 것은 여러 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부모님 모시기도 하지도. 죽으면 아무 것도 못해요. 가장 긍정적인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이렇게 늘 재수가 좋은 거예요."(본문 중에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은 현실의 어려움과 의문을 명쾌한 해답으로 풀어내는 이야기 강연이다. 그날 현장에서 나온 질문들이 그날 강연의 핵심 소재다. 저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질문자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야단법석2'는 2015년 한해 동안 많은 이들과 나누는 대화록이다. '야단법석1'이 2014년 세계 115개 도시를 돌며 진행한 강연을 기록한 책인데 반해, 이번 2권은 대체로 '행복'을 소재로 한 대화를 엮은 것이다.

부안 숙박시설

(모텔) 매매·임대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직접 운영시 월 수익 2,000만원 가능

(2개동 룸 43개)

감정가 16억
매가 9억 (1개동 매매시 5억)
(웅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주택가능, 펜션, 모텔 적합)

상무지구 상가

매매

시청 1분, 금음가대로변
현대아파트 후문 앞

8층 중 4층 (45평)

내부깨끗 / 주차 가능

보 2천 월 100만
→ 매가 1억9천 (웅7천)

010-6670-9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8천8백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1)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1층 실면적 34평 (코너) 감정가 16억 → 최저가 15억7,700만	1) 충남 태안 (4층 콘도) 바닷가 1분 토지 831평 건물 1,040평 감정가 40억 → 최저가 9억4천
2)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1) 충남 태안 (4층 콘도) 바닷가 1분 토지 831평 건물 1,040평 감정가 40억 → 최저가 9억4천
3) 광산구 신가동 (4층상가건물) 토지 76평 건 192평 감정가 7억1천 → 최저가 7억1천	3) 익산시 중앙동3가 (3층상가건물) 토지 77평 건물 254평 감정가 5억9천 → 최저가 4억1천
4)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4) 화순 도곡 (5층 호텔) 토지 617평 건물 856평 감정가 26억 → 최저가 14억8천
5) 동구 충장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5) 화순 도곡 (3층 무인텔) 토지 995평 건물 991평 감정가 38억 → 최저가 27억
5) 광산구 오선동 (공점) 토지 2,546평 건물 1,738평 감정가 90억 → 최저가 50억	6) 전북 고창 흥덕면 (숙박시설) 토지 454평 건물 464평 감정가 7억9천 → 최저가 3억9천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7384-7800